

2017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18년 1분기 전망

I. '17년 4분기 수출 실적 평가	1
II. '18년 1분기 수출 전망	13
III. 수출기업 애로 사항	20

작 성

선임연구원 김윤지 (02-3779-6677)
yzkim@koreaexim.go.kr

조 사 역 나혜영 (02-6255-5709)
nhy@koreaexim.go.kr

< 요약 >

I. '17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 **4분기 수출 전년동기대비 8.5%, '17년 총수출 15.8% 증가**

-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한 1,437억 달러로, 조업일수 감소(△6.5일)로 전분기(1,510억 달러)보다는 4.9% 하락했지만 4분기 수출액으로는 '14년 이후 최대치 기록
- 반도체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하며 호조세 유지, 선진국 경기 회복 지속,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유화학, 석유제품, 일반기계, 철강 수출도 증가 지속
- 수출물량지수는 수송장비는 크게 하락했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일반기계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2.9% 상승, 전기대비로는 1.7% 하락

※ 수출물량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19.6('17.9월)→△1.9(10월)→8.7(11월)→1.7(12월)

- 2017년 수출은 전년대비 15.8% 증가한 5,739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11년 이후 6년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 및 '14년 이후 3년만에 무역 1조 달러 회복 등을 달성

□ **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p 하락(97→96), 전기 대비 동일 수준**

- 환율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하락 및 큰 폭의 조업일수 감소(△6.5일)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등이 개선되며 전기대비 동일, 전년동기대비 1p 하락해 수출업황 회복세 지속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추이 >

구	분	'15년				'16년				'17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업황 평가지수		90	93	94	90	85	96	90	97	92	98	96	96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0	94	98	94	93	95	90	95	92	95	95	94
	수출단가 평가지수	91	97	100	93	97	100	94	101	99	99	102	95
	생산원가 평가지수	99	103	103	97	103	104	103	112	111	108	113	110
	수출물량 평가지수	90	96	94	91	85	97	93	97	94	100	97	98
	수출계약 평가지수	89	96	93	90	84	97	93	97	93	100	96	98
	자금사정 평가지수	93	96	95	97	95	97	96	97	97	96	95	98

- 산업별로는 석유류(88→104), 자동차(86→95), 철강·비철금속(91→98) 등은 전기대비 상승, 전기전자(99→90), 신재생에너지(100→93), 플랜트·해외건설(94→89) 등은 하락
-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대기업은 전분기와 유사했으나 중소기업들의 업황 악화 비율이 높아져 지수 하락

< 산업별·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

산업	석유 화학	철강 금속	전기 전자	기계류	자동차	선박	플랜트· 해건	신재생 에너지	대기업	중소 기업
'17.3Q	102	91	99	98	86	85	94	100	97	95
'17.4Q	99	98	90	96	95	86	89	93	102	94

II. '18년 1분기 수출 전망

□ 1분기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6.8%, 전기대비 1.3% 상승

- '18년 1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19.5로 전기대비로는 1.3%, 수출 경기의 기준이 되는 전년동기대비로는 6.8% 상승해 5분기 연속 상승세 지속
- 수출 선행지수가 5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소폭 하락하는 등 지수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어 전년에 비해 수출 증가폭은 축소될 전망

※ 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4.5('17.1Q) → 13.1(2Q) → 7.3(3Q) → 7.3(4Q) → 6.8('18.1Q)

< 수출선행지수 추이 >

분기별	2016				2017				2018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선행지수	107.1	104.3	107.1	110.0	111.9	118.0	114.9	118.0	119.5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8.2	△5.2	△2.2	0.0	4.5	13.1	7.3	7.3	6.8
전기대비 증감률(%)	△2.6	△2.6	2.6	2.7	1.7	5.5	△2.6	2.7	1.3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차(%p)	2.5	3.0	3.0	2.2	4.5	8.7	△5.8	0.0	△0.5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 수출대상국 경기 회복 지속으로 수출 호조세 유지

- 수출대상국 경기전망 :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경기 회복세 유지,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도 경기 성장세 지속

※ 수출대상국 경가지수(2010년=100) : 138.4('17.1Q)→140.3(2Q)→141.8(3Q)→~~143.4~~(4Q)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전기대비 유가 상승 및 반도체 등 주력산업 선제 투자 확대 영향으로 전기대비 4.3%,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해 상승세 유지

※ 수출용 수입액지수 (2010=100)

: 86.3('16.4Q) → 97.7('17.1Q) → 93.0(2Q) → 96.7(3Q) → 100.9(4Q)

- 가격경쟁력 : 4분기 원/달러 환율이 전분기 대비 2.3% 하락함에 따라 실질실효환율 상승, 수출 가격경쟁력은 하락

※ 원/달러환율(평균) : 1,152.6('17.1Q)→1,130.1(2Q)→1,132.5(3Q)→1,105.2(4Q)

※ 원화 실질실효환율(BIS) : 113.1('17.1Q)→113.3(2Q)→110.9(3Q)→112.7(4Q)

- 수출물가 : 유가 상승 및 반도체·철강 단가 인상으로 전기대비 (2.1%) 및 전년동기대비(7.3%) 상승 지속

※ 수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등락률(% , 달러기준)

: 8.8 (9월) → 7.5 (10월)→7.8 (11월) → 6.6 (12월)

※ 유가(Dubai, \$/bl) 추이(기간평균)

: 53.66 (9월) → 55.54 (10월)→60.82 (11월) → 61.61 (12월)

- 주요 산업 : 반도체 단가가 전년동기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등 큰 폭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철강·석유제품 등도 단가 상승을 지속하고 있어 수출 회복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 D램 현물가격(\$, DDR4_4Gb) : 3.2('17.1월)→3.9(9월)→~~4.7~~(10월)→~~4.8~~(11월)→~~4.9~~(12월)

-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확대로 금년 상반기 중 수출 성장세는 유지되겠지만, 하반기에는 최근 설비 투자 확대 영향으로 인한 평균 단가 인하 가능성이 있어 수출 증가폭은 서서히 축소

- 자동차는 유럽, 신흥국 수출은 상승세로 전환되겠으나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 중 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 선박은 2016년 수주 급감 영향으로 수출액은 내년 이후 증가 전환

□ '18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0~12% 증가 전망

- 1분기 수출선행지수가 전기대비 1.3%, 전년동기대비 6.8% 상승하고, 수출 대상국 경기회복과 유가 및 수출 단가 상승세가 유지되는 등 수출 여건 개선이 지속됨에 따라 1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12% 상승 전망

- 다만, 미국 통상압력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화 환율 강세 등으로 일부 품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상승폭은 축소 가능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 설문대상 수출기업(454개사)은 수출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개도국의 저가공세'(50.9%), '원화환율 불안정'(50.7%),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22.5%)순으로 응답

- 전기대비 '원화환율 불안정' 20.0%p 상승(30.6%→50.7%), '원재료 가격 상승' 4.2%p 하락(18.9%→14.8%),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 7.5%p 하락(30.0%→22.5%)

-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개도국의 저가공세' (51.1%/50.8%), '원화환율 불안정'(46.8%/51.7%),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31.9%/20.0%)를 수출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

- (산업별)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비철금속,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업종에서 '원화환율 불안정' 응답률이 전기대비 상승, '수출대상국 수입규제',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 응답률은 하락

I. '17년 4분기 수출 실적 평가

1.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

□ 4분기 수출 전년동기대비 8.5%, '17년 총수출 전년대비 15.8% 증가

-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한 1,437억 달러로, 조업일수 감소(△6.5일)로 전분기(1,510억 달러)보다는 4.9% 하락했지만 동 분기 수출액으로는 '14년 이후 최대치 기록
- 반도체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하며 호조세 유지, 선진국 경기 회복 지속,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유화학, 석유제품, 일반기계, 철강 수출도 증가 지속

※ 반도체 수출액(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2('17. 1Q, 44.3%)→227(2Q, 54.4%)→263(3Q, 61.6%)→**287(4Q, 66.5%)**

- 2017년 수출은 전년대비 15.8% 증가한 5,739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11년 이후 6년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 및 '14년 이후 3년만에 무역 1조 달러 회복 등을 달성

< 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1/A	2/A	3/A	4/A	1/A	2/A	3/A	4/A	1/A	2/A	3/A	4/A
수 출 액	1,334	1,351	1,282	1,300	1,152	1,260	1,219	1,324	1,321	1,471	1,510	1,437
증가율(%)	△3.0	△7.3	△9.5	△12.0	△13.3	△6.7	△5.0	1.8	14.7	16.7	23.9	8.6
수출물가지수	87.9	88.3	84.5	81.2	78.3	79.4	80.6	83.6	86.3	86.9	87.8	89.7
증가율(%)	△10.4	△9.9	△13.9	△12.8	△10.9	△10.1	△4.5	3.0	10.2	9.4	8.9	7.3
수입물가지수	85.8	85.7	80.4	77.1	72.9	76.3	77.4	80.2	83.3	82.6	83.0	86.5
증가율(%)	△20.4	△20.5	△24.2	△19.5	△15.0	△11.0	△3.7	4.1	14.3	8.2	7.3	7.8
수출물량지수	129.4	135.1	134.9	140.0	129.2	137.7	135.4	141.5	137.7	141.4	148.1	145.6
증가율(%)	2.8	2.9	4.2	0.5	△0.1	1.9	0.4	1.1	6.6	2.8	9.4	2.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주: 수출액은 억 달러,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출입물가지수는 달러화 기준 (2010=100)

-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중국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호조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현지 생산기지 수출 증가 지속으로 베트남 등 아세안도 호조세 유지
- 미국은 자동차 판매 부진 지속으로 감소 전환, 중동은 건설 수주 하락으로 인한 일반기계 수출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 주요지역별 수출 증감률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구분	'17.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 국	15.6	23.6	13.5	20.3	14.9
베 트 남	36.6	69.3	33.8	46.1	27.2
아 세 안	23.8	44.9	17.9	13.5	29.4
일 본	4.8	16.1	△12.3	10.4	11.1
미 국	23.6	28.5	△12.4	11.4	△7.6
중 동	△0.7	8.5	△34.2	△13.3	△18.7

- 품목별로는 물량·단가 상승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석유화학, 석유제품도 수요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증가세 지속, 주요국 경기 회복으로 일반기계 등도 증가세 유지
- 무선통신기기, 가전은 완제품 해외생산 비중 확대 및 부분품 현지 조달 확대 영향으로 두 자리수 수출 감소 지속, 미국내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자동차 및 차부품 수출 부진도 지속

< 주요품목별 수출 증감률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구분	'17.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반 도 체	56.7	69.9	69.6	65.2	64.9
석 유 화 학	17.8	41.4	6.1	17.7	21.9
일 반 기 계	13.2	23.4	△7.2	19.6	11.1
무선통신기기	△23.3	△16.0	△29.2	△21.5	△36.2
자 동 차	25.4	59.9	△13.0	3.1	△34.2

○ 수출물량은 7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상승세는 이어졌으나 전분기보다 증가폭(9.4%→2.9%) 축소, 수출물가도 상승세 유지

- 수출물량지수는 수송장비는 크게 하락했으나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일반기계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2.9% 상승, 전기대비로는 1.7% 하락

※ 수출물량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19.6('17.9월)→ △1.9(10월)→ 8.7(11월)→ 1.7(12월)

- 수출물가지수(달러화기준)는 석탄 및 석유제품(12.0%), 1차 금속제품(11.0%), 화학제품(8.9%)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해 상승세 유지, 전기대비로도 2.1% 증가

□ 수출물가는 환율 하락으로 상승폭 축소, 수입물가는 유가 상승으로 상승세 유지

○ 원달러 환율이 전기대비 2.3% 하락한 영향으로 원화기준 수출물가지수는 전기대비 0.1% 하락, 전년동기대비 상승폭도 2.7%로 축소돼 수출기업 채산성은 악화

※ 원/달러환율(평균) : 1,154.3('17.1Q)→ 1,129.4(2Q)→ 1,132.2(3Q)→ 1,105.7(4Q)

※ 수출물가지수(원화기준) : 86.2('17.1Q)→ 84.8(2Q)→ 86.0(3Q)→ 85.9(4Q)

-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17.4%)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물가지수는 전기대비 5.6% 상승해 전체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는 전기대비 1.8% 상승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52.9('17.1Q)→ 49.6(2Q)→ 50.5(3Q)→ 59.3(4Q)

※ 원자재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 76.1('17.1Q)→ 73.8(2Q)→ 73.4(3Q)→ 77.5(4Q)

※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 83.2('17.1Q)→ 80.6(2Q)→ 81.3(3Q)→ 82.8(4Q)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가. 전체 수출업황

- 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p 하락(97→96), 전기대비 동일 수준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원화환율 하락 영향으로 생산원가 평가지수가 하락(113→110)하였으나, 수출단가 평가지수(원화기준)가 더 큰 폭으로 하락(102→95)하여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전기대비 1p 하락(95→94)
 - ※ 원/달러환율(평균) : 1,154.3(17.1Q) → 1,129.4(2Q) → 1,132.2(3Q) → **1,105.7(4Q)**
- (수출물량 평가지수) 전기대비 및 전년동기대비 1p 상승한 98 기록
- (수출계약 평가지수) 전기대비 2p, 전년동기대비 1p 상승한 98 기록
- (자금사정 평가지수) 전기대비 3p, 전년동기대비 1p 상승한 98 기록
- ➔ 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하락 및 큰 폭의 조업일수 감소(△6.5일)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등이 개선되며 전기대비 동일, 전년동기대비 1p 하락해 수출업황 회복세 지속

<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업황 평가지수		94	95	90	93	94	90	85	96	90	97	92	98	96	96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0	98	90	94	98	94	93	95	90	95	92	95	95	94
수출단가 평가지수		90	98	91	97	100	93	97	100	94	101	99	99	102	95
생산원가 평가지수		101	102	99	103	103	97	103	104	103	112	111	108	113	110
수출물량 평가지수		98	97	90	96	94	91	85	97	93	97	94	100	97	98
수출계약 평가지수		97	96	89	96	93	90	84	97	93	97	93	100	96	98
자금사정 평가지수		93	98	93	96	95	97	95	97	96	97	97	96	95	98

주: <부록>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참고

나. 규모별·산업별·지역별 수출업황

□ (기업규모별) 전기대비 대기업 5p(97→102) 상승, 중소기업 1p(94→95)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대기업(99→98), 중소기업(94→93) 모두 전기대비 하락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대기업은 전기대비 상승(99→105), 중소기업은 전기대비 하락(97→96)

< 2017년 3~4분기 수출업황·수출채산성·수출물량 평가지수 >

구 분		수출업황 지수		수출채산성 지수		수출물량 지수	
		'17년 3분기	'17년 4분기	'17년 3분기	'17년 4분기	'17년 3분기	'17년 4분기
전	체	96	96	95	94	97	98
규모	대 기업	97	102	99	98	99	105
	중 소 기업	95	94	94	93	97	96
산업	전기전자	99	90	96	91	102	92
	기계류	98	96	96	96	96	99
	철강·비철금속	91	98	92	91	91	99
	석유정제·화학	102	99	99	92	100	103
	자동차	86	95	85	91	86	99
	섬유류	88	104	95	104	91	103
	플랜트·해외건설	94	89	96	97	102	91
	신재생에너지	100	93	107	107	100	102
	선박	85	86	87	86	83	80
수출지역	미국(북미)	99	95	98	95	101	100
	중국	96	101	97	97	98	103
	일본	101	100	93	94	99	102
	유로존	94	93	94	91	97	94
	동남아	94	94	93	92	95	95
	중남미	86	92	100	96	100	88
	중동	83	92	90	92	81	94

- (산업별) 섬유류(88→104), 자동차(86→95), 철강·비철금속(91→98) 등은 전기대비 상승, 전기전자(99→90), 신재생에너지(100→93), 플랜트·해외건설(94→89) 등은 하락
 -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대기업은 전분기와 유사했으나 중소기업들의 업황 악화 비율이 높아져 지수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섬유류(95→104), 자동차(85→91) 등은 상승, 석유정제·화학(99→92), 전기전자(96→91) 등은 하락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자동차(86→99), 섬유류(91→103), 철강·비철금속(91→99) 등은 상승, 플랜트·해외건설(102→91), 전기전자(102→92), 선박(83→80) 등은 하락
- (지역별) 중동(83→92), 중남미(86→92), 중국(96→101) 등 지역에서 전기대비 상승, 미국(99→95), 일본(101→100), 유로존(94→93) 등에서는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중동(90→92), 일본(93→94) 등에서 상승, 중남미(100→96), 미국(98→95), 유로존(94→91) 등에서 하락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중동(81→94), 중국(98→103), 일본(99→102) 등 지역에서 상승, 중남미(100→88), 유로존(97→94) 등에서는 하락

3. 수출기업 업황 평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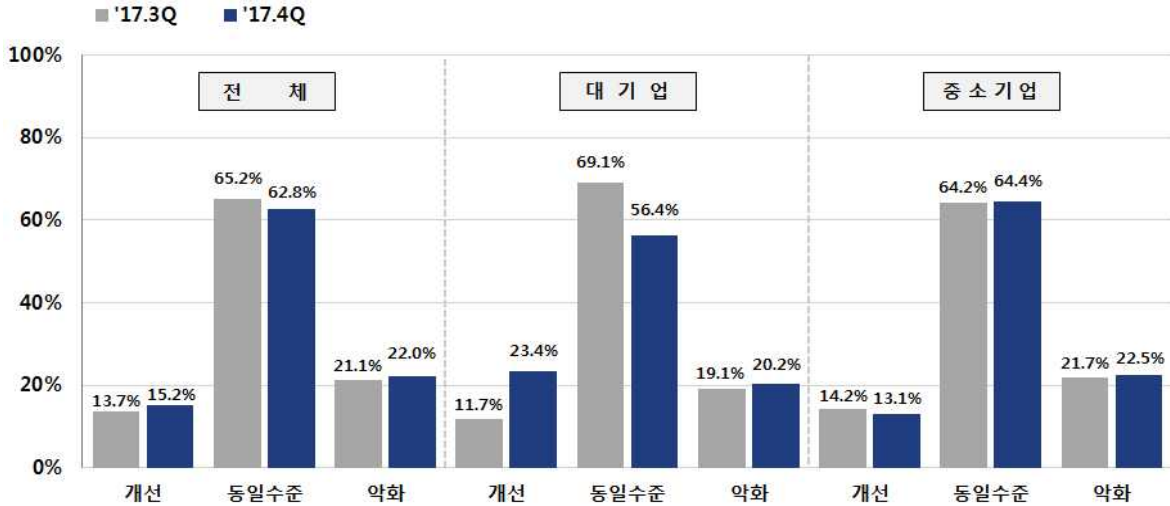
가. 수출업황 평가 현황

- 설문응답 수출기업(454개사) 중 수출업황 전기대비 '개선' 응답은 15.2%(69개사), '악화' 응답은 22.0%(100개사)로 악화 우세 유지
 - 전기대비 수출업황 '개선' 응답 비율이 1.5%p 증가(13.7%→15.2%)했으나, '악화' 응답 비율도 0.9%p 증가(21.1%→22.0%)
 - (규모별) 대기업은 수출업황 '개선(23.4%)' 응답 우세, 중소기업은 '악화(22.5%)' 응답 우세
 - 대기업은 전분기 대비 '개선' 응답 비중이 11.7%p 증가(11.7%→23.4%)했으나, 중소기업은 1.1%p 감소(14.2%→13.1%)

- '악화' 응답 비중은 대기업은 전분기대비 1.1%p 증가(19.1%→20.2%), 중소기업도 0.8%p 증가(21.7%→22.5%)

< 4분기 수출업황 평가 현황(기업규모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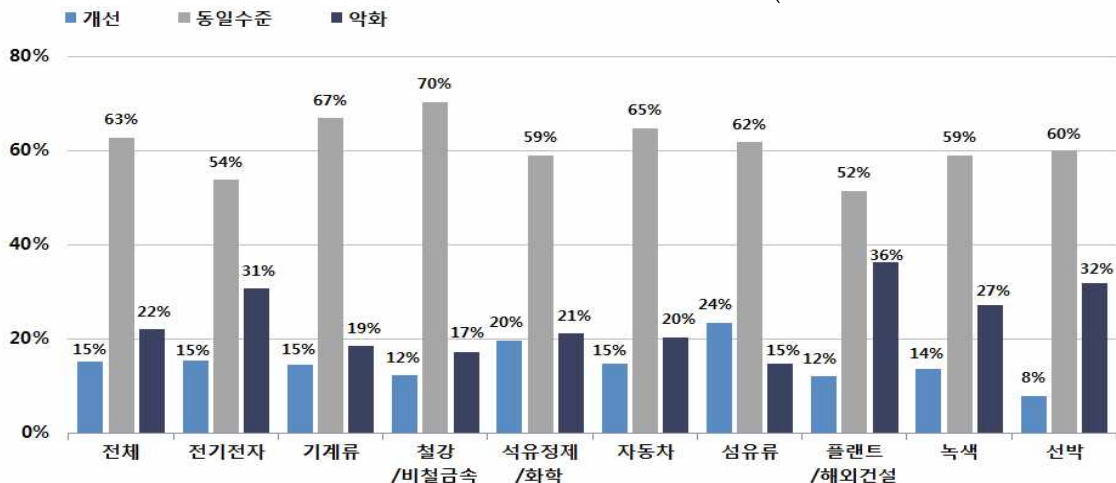
(응답 기업 수 454, 단위 : %)



- (산업별) 전기전자(53.8%), 기계류(66.9%), 철강·비철금속(70.4%), 석유정제·화학(59.1%), 자동차(64.8%) 등 대부분 수출업종에서 '동일 수준'이 50~70%로 가장 높은 가운데, '악화' 응답이 '개선'보다 더 높게 나타남.
- 반면, 섬유류는 '개선' 응답(23.5%)이 '악화'(15.0%)보다 더 높았음.
- 신재생에너지(+22.9%p), 플랜트·해외건설(+17.1%p), 전기전자(+11.2%p), 자동차(+9.1%p) 등은 '악화' 응답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동일 수준' 비중 감소

< 4분기 수출업황 평가 현황(산업별) >

(응답 기업 수 45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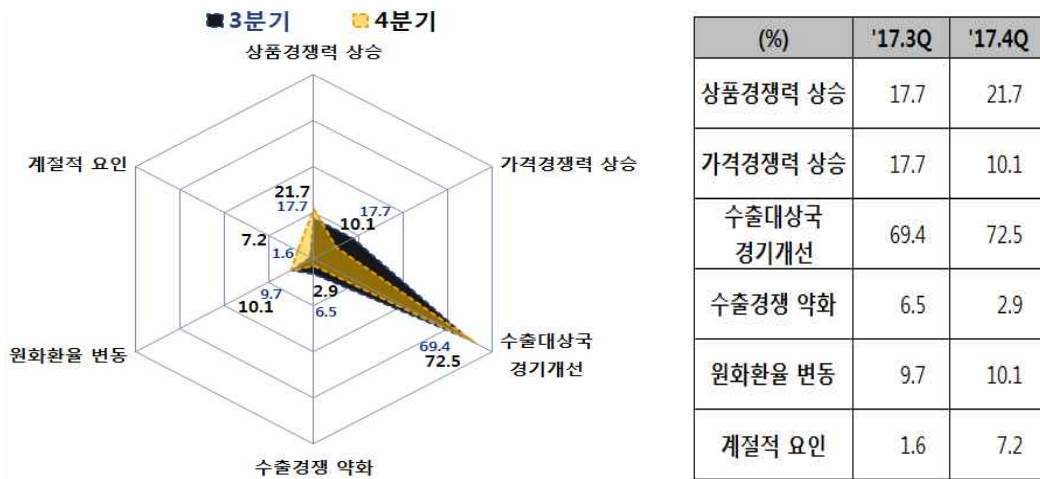


나.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수출업황 '개선' 응답 기업(69개사)은 주요 원인으로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72.5%), '상품경쟁력 상승'(21.7%)을 선택

< 4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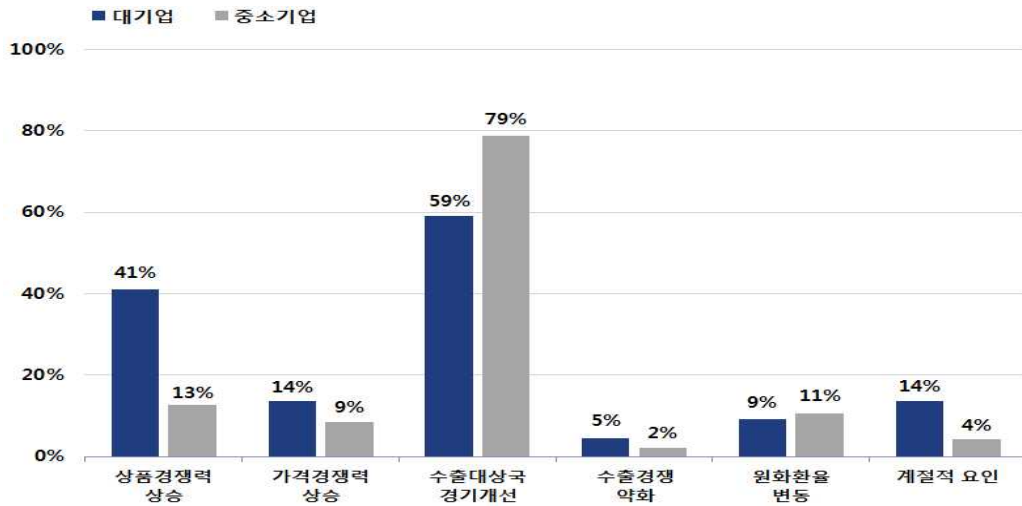
('개선' 응답 기업 수 69, 복수응답, 단위 : %)



- 전기대비 '가격경쟁력 상승(비용구조 개선)'과 '수출경쟁 약화' 응답률이 각각 7.6%p, 3.6%p 하락한 반면, '상품경쟁력 상승'과 '계절적 요인' 응답률은 각각 4.0%p, 5.6%p 상승
-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의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이 일본(85.7%)*, 중국(79.2%), 미국(69.2%)인 기업에서 응답
 - * 수출 업황 '개선'을 응답한 기업 중 주요 수출대상국이 '일본'인 기업 가운데 85.7%가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을 주요 원인으로 선택 (복수응답)
-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업황개선의 주요원인으로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59.1%/78.7%), '상품경쟁력 상승'(40.9%/12.8%) 선택
 - 반면 '가격경쟁력 상승' 응답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13.6p, 7.2%p 감소

< 4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기업규모별) >

(‘개선’ 응답 기업 수 69,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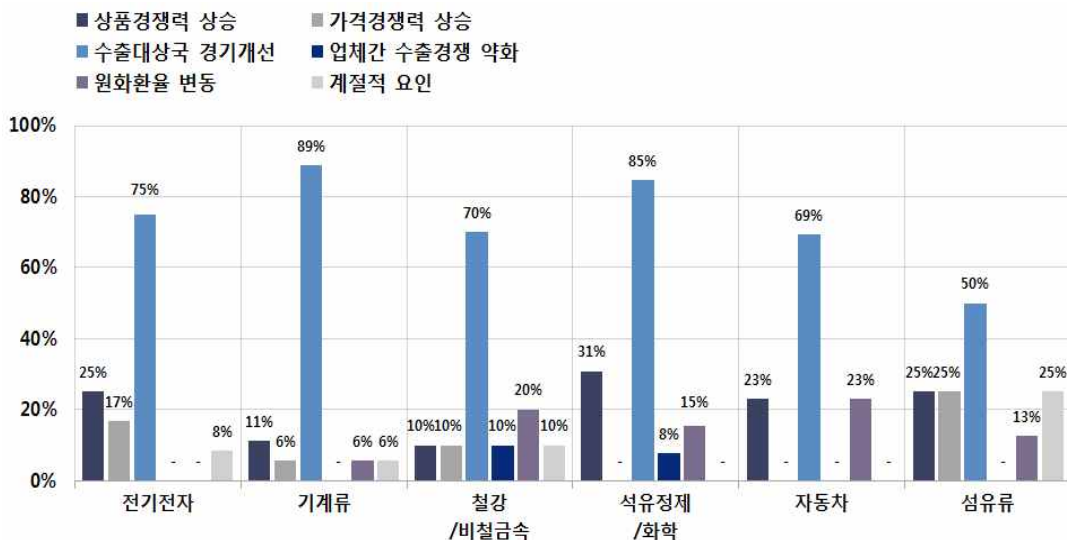


○ (산업별) 대부분의 산업군이 업황 개선의 주요 원인을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 ‘상품경쟁력 상승’ 순으로 선택

- 기계류, 철강·금속, 석유화학, 플랜트·해건, 신재생에너지, 선박 등 업종에서 전기에 비해 ‘가격경쟁력 상승’ 비중이 줄고, ‘수출 대상국 경기 개선’ 비중이 증가

< 4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산업별) >

(‘개선’ 응답 기업 수 69, 복수응답, 단위 : %)



< '17년도 4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

(단위 : %)

구 분		상품경쟁력 상 승	가격경쟁력 상 승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수출경쟁 약 화	원화환율 변 동	계 절 적 요 인
전	체	21.7	10.1	72.5	2.9	10.1	7.2
규모	대 기 업	40.9	13.6	59.1	4.5	9.1	13.6
	중 소 기 업	12.8	8.5	78.7	2.1	10.6	4.3
산업	전 기 전 자	25.0	16.7	75.0	-	-	8.3
	기 계 류	11.1	5.6	88.9	-	5.6	5.6
	철강·비철금속	10.0	10.0	70.0	10.0	20.0	10.0
	석유정제·화학	30.8	-	84.6	7.7	15.4	-
	자 동 차	23.1	-	69.2	-	23.1	-
	섬 유 류	25.0	25.0	50.0	-	12.5	25.0
	플랜트·해외건 설	75.0	-	75.0	-	-	-
	녹 색	66.7	33.3	66.7	-	-	-
	선 박	50.0	-	100.0	-	-	-
	수출 지역	미 국 (북 미)	46.2	15.4	69.2	-	-
중 국		16.7	12.5	79.2	4.2	8.3	4.2
일 본		-	14.3	85.7	14.3	14.3	-
유 로 존		40.0	20.0	40.0	-	20.0	20.0
동 남 아		15.4	-	76.9	-	7.7	15.4
중 남 미		-	-	100.0	-	-	-
	중 동	25.0	-	25.0	-	-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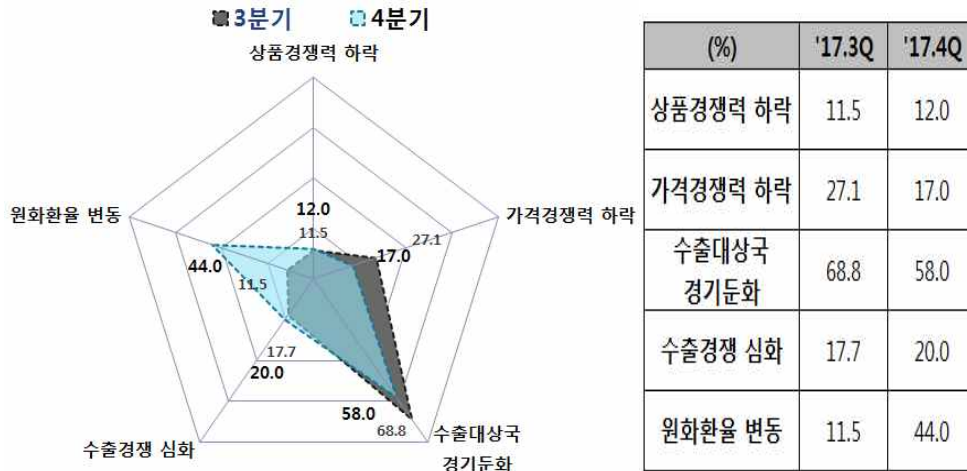
*자료 : 총 69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다. 수출업황 '악화' 원인

- 수출업황 '악화' 응답 기업(100개사)은 주요 원인으로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58.0%)와 '원화환율 변동'(44.0%)을 선택
- 전기대비 '원화환율 변동' 응답률이 32.5%p 상승(11.5%→44.0%), '가격경쟁력 하락' 및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 응답률은 각각 10.1%p(27.1%→17.0%), 10.8%p(68.8%→58.0%) 하락

< 4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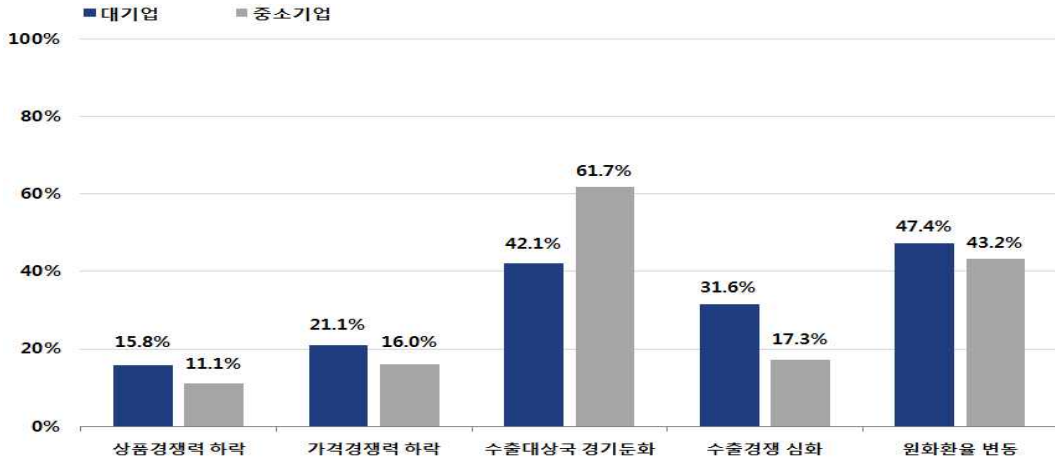
(‘악화’ 응답 기업 수 100, 복수응답, 단위 : %)



-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의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이 중동(77.8%)*, 중국(68.4%), 동남아(66.7%), 중남미(66.7%) 등인 기업에서 응답
- * 수출 업황 '악화'를 답한 기업 중 주요 수출대상국이 '중동'인 기업 가운데 77.8%가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를 주요 원인으로 선택 (복수응답)
- (규모별) 대기업은 '원화환율 변동'(47.4%), 중소기업은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61.7%)를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선택
 -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원화환율 변동' 비중이 각각 36.3%p(11.1%→47.4%), 31.7%p(11.5%→43.2%) 증가
- (산업별) 모든 업종에서 '원화환율 변동' 비중이 12%p 이상 증가
 - '원화환율 변동' 응답률은 철강·비철금속 59.9%p(4.3%→64.3%), 자동차 42.3%p(7.7%→50.0%) 증가

< 4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기업규모별) >

(‘악화’ 응답 기업 수 100, 복수응답, 단위 : %)



< '17년도 4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

(단위 : %)

구분	상품경쟁력 하락	가격경쟁력 하락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수출경쟁 심화	원화환율 변동	
전체	12.0	17.0	58.0	20.0	44.0	
규모	대기업	15.8	21.1	42.1	31.6	47.4
	중소기업	11.1	16.0	61.7	17.3	43.2
산업	전기전자	25.0	8.3	66.7	16.7	25.0
	기계류	8.7	21.7	56.5	30.4	47.8
	철강·비철금속	7.1	21.4	42.9	7.1	64.3
	석유정제·화학	7.1	21.4	50.0	21.4	50.0
	자동차	5.6	5.6	50.0	16.7	50.0
	섬유류	20.0	20.0	80.0	20.0	40.0
	플랜트·해외건설	8.3	25.0	50.0	25.0	41.7
	신재생에너지	-	33.3	50.0	-	66.7
	선박	25.0	12.5	87.5	25.0	37.5
수출지역	미국(북미)	9.1	13.6	45.5	22.7	50.0
	중국	21.1	15.8	68.4	10.5	31.6
	일본	-	14.3	57.1	14.3	71.4
	유로존	9.1	27.3	36.4	9.1	72.7
	동남아	22.2	11.1	66.7	33.3	27.8
	중남미	-	-	66.7	33.3	33.3
	중동	-	11.1	77.8	33.3	22.2

* 자료 : 총 100개사 <복수응답>

II. '18년 1분기 수출 전망

1. 수출선행지수 추이

□ 1분기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6.8%, 전기대비 1.3% 상승

○ '18년 1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19.5로 전기대비로는 1.3%, 수출 경기의 기준이 되는 전년동기대비로는 6.8% 상승해 5분기 연속 상승세 지속

※ 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4.5('17.1Q) → 13.1(2Q) → 7.3(3Q) → 7.3(4Q) → 6.8('18.1Q)

※ 선행지수 전기대비 증가율(%)

: 1.7('17.1Q) → 5.5(2Q) → △2.6(3Q) → 2.7(4Q) → 1.3('18.1Q)

< 수출선행지수 추이 >

분기별	2016				2017				2018
	1/A	2/A	3/A	4/A	1/A	2/A	3/A	4/A	1/A
수출선행지수	107.1	104.3	107.1	110.0	111.9	118.0	114.9	118.0	119.5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8.2	△5.2	△2.2	0.0	4.5	13.1	7.3	7.3	6.8
전기대비 증감률(%)	△2.6	△2.6	2.6	2.7	1.7	5.5	△2.6	2.7	1.3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차(%p)	2.5	3.0	3.0	2.2	4.5	8.7	△5.8	0.0	△0.5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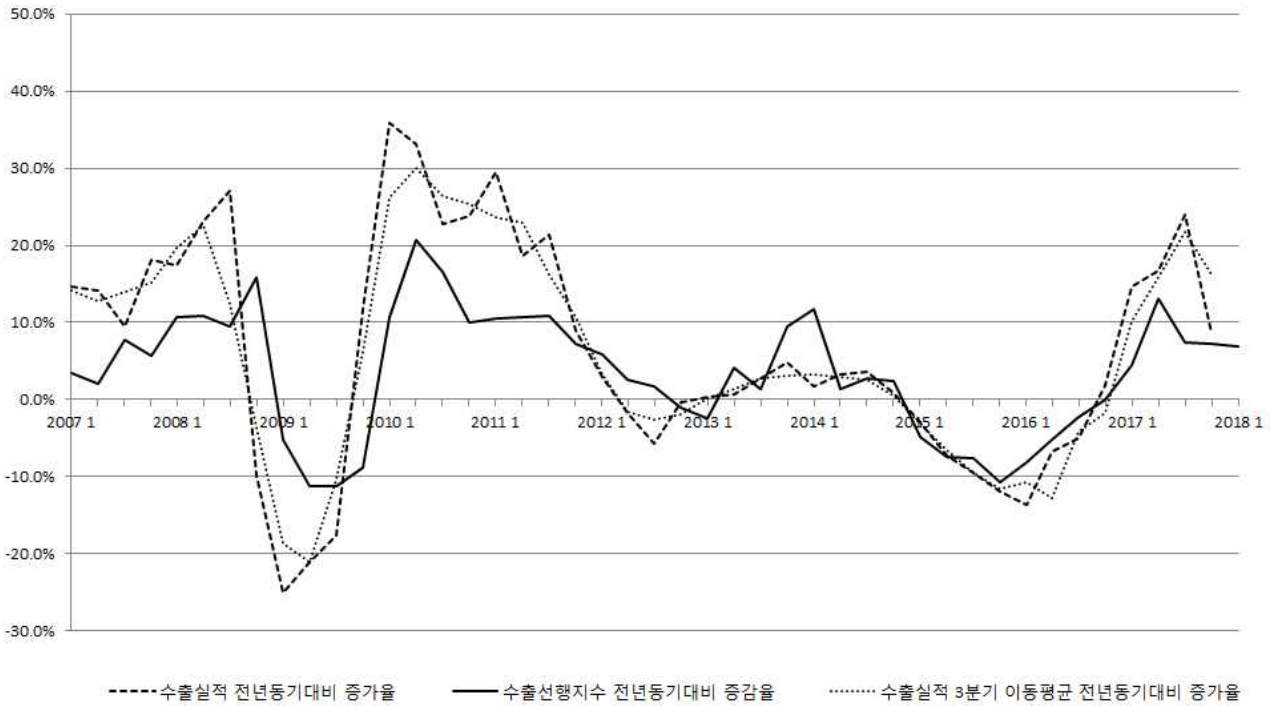
○ 수출 선행지수가 5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소폭 하락하는 등 지수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어 전년에 비해 수출 증가폭은 축소될 전망

- 최근 수출액 증가는 단가 상승효과 영향으로 실제 수출액 증가율이 수출선행지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해 왔으나, 동 영향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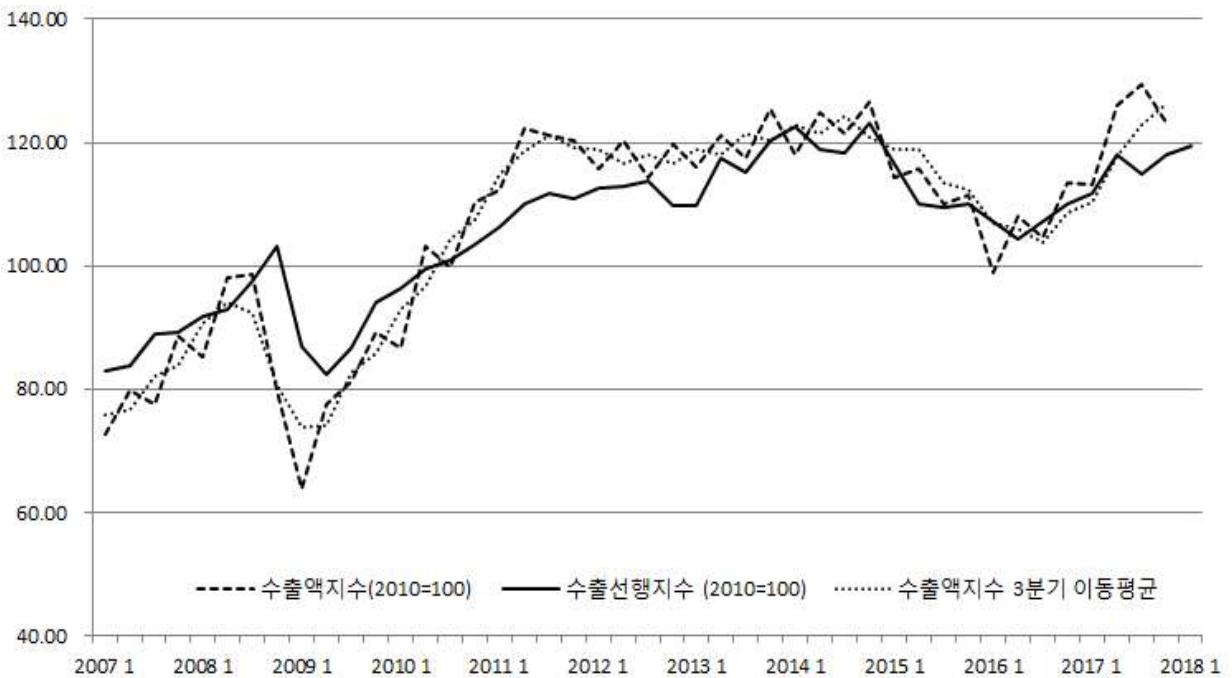
※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4.7('17.1Q) → 16.7(2Q) → 24.0(3Q) → 8.5(4Q)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실적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추이 >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지수 추이 >



□ 수출대상국 경기 회복 지속으로 수출 호조세 유지

- 수출대상국 경기전망 :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경기 회복세 유지,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도 경기 성장세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2010년=100) : 138.4('17.1Q)→ 140.3(2Q)→ 141.8(3Q)→ **143.4(4Q)**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증감율(전년동기비, %) : 5.1('17.1Q)→ 5.7(2Q)→ 4.1(3Q)→ **3.9(4Q)**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전기대비 유가 상승 및 반도체 등 주력산업 선제 투자 확대 영향으로 전기대비 **4.3%**,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해 상승세 유지

※ 수출용 수입액지수 (2010=100)

: 86.3('16.4Q)→ 97.7('17.1Q)→ 93.0(2Q)→ 96.7(3Q)→ **100.9(4Q)**

- 가격경쟁력 : 4분기 원/달러 환율이 전분기 대비 **2.3%** 하락함에 따라 실질실효환율 상승, 수출 가격경쟁력은 하락

※ 원/달러환율(평균) : 1,152.6('17.1Q)→ 1,130.1(2Q)→ 1,132.5(3Q)→ **1,105.2(4Q)**

※ 원화 실질실효환율(BIS) : 113.1('17.1Q)→ 113.3(2Q)→ 110.9(3Q)→ **112.7(4Q)**

※ 엔화 실질실효환율(BIS) : 76.4('17.1Q)→ 77.2(2Q)→ 75.2(3Q)→ **73.5(4Q)**

- 실질실효환율* : 엔화는 완화정책 유지로 약세를 지속한 반면, 원화는 하반기 국내 성장률 상승 영향으로 12월 실질실효환율 2017년 3월 이후 최고 수준(114.46) 기록

* 실질실효환율 : 교역상대국의 환율을 교역량으로 가중평균한 뒤 물가변동을 감안해 산출하는 지표로, 2010년=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통화가치 고평가를, 100 이하면 통화가치 저평가를 나타냄.

- 수출물가 : 유가 상승 및 반도체·철강 단가 인상으로 전기대비 (2.1%) 및 전년동기대비(7.3%) **상승 지속**

※ 수출물가지수 전월대비 등락률(% , 달러기준)

: 1.1 (9월) → **0.5 (10월)** → **0.8 (11월)** → **0.2 (12월)**

※ 수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등락률(% , 달러기준)

: 8.8 (9월) → **7.5 (10월)** → **7.8 (11월)** → **6.6 (12월)**

※ 유가(Dubai, \$/bl) 추이(기간평균)

: 53.66 (9월) → **55.54 (10월)** → **60.82 (11월)** → **61.61 (12월)**

- **주요 산업** : 반도체 단가가 전년동기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등 큰 폭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철강·석유제품 등도 단가 상승을 지속하고 있어 수출 회복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 D램 현물가격(\$, DDR4_4Gb) : 3.2(17.1월)→3.9(9월)→~~4.7(10월)~~→~~4.8(11월)~~→~~4.9(12월)~~

-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확대로 금년 상반기 중 수출 성장세는 유지되겠으나, 하반기에는 최근 설비투자 확대 영향으로 인한 평균 단가 인하 가능성이 있어 수출 증가폭은 서서히 축소
- 자동차는 유럽, 신흥국 수출은 상승세로 전환되겠으나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 중 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 선박은 2016년 수주 급감 영향으로 수출액은 내년 이후 증가 전환

□ 2018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0~12% 증가 전망

- 1분기 수출선행지수가 전기대비 1.3%, 전년동기대비 6.8% 상승하고, 수출 대상국 경기회복과 유가 및 수출 단가 상승세가 유지되는 등 수출 여건 개선이 지속됨에 따라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0~12% 상승 전망
- 다만, 미국 통상압력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화 환율 강세 등으로 일부 품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상승폭은 축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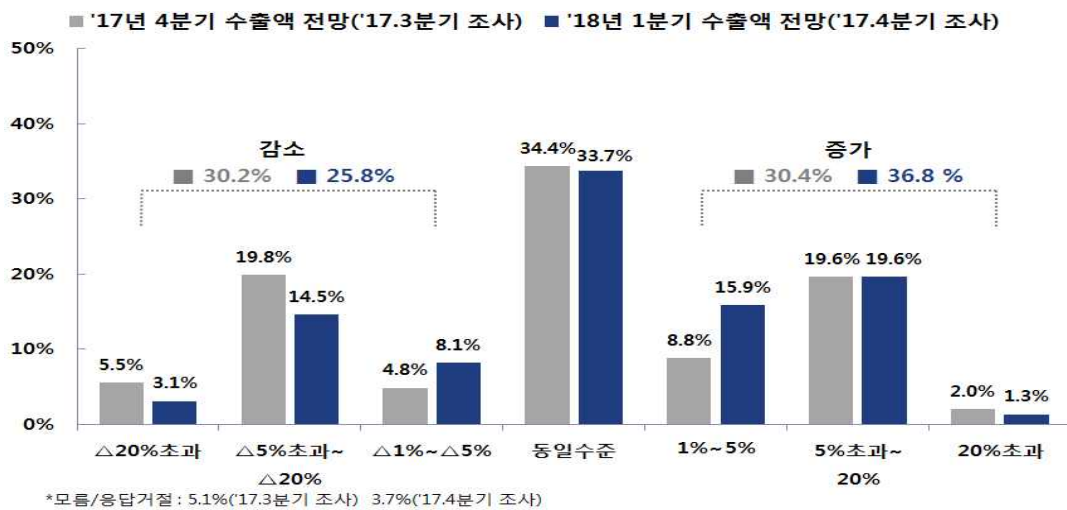
2. 수출기업 1분기 수출액 전망

□ 설문대상 기업(454개사) 중 전년동기대비 '18년 1분기 수출액 '증가' 전망 36.8%(167개사), '감소' 25.8%(117개사), '동일 수준' 33.7%(153개사)로 '증가' 전망 우세

○ 전기대비 수출액 '증가' 전망의 비중은 6.4%p 증가(30.4%→36.8%), '감소' 전망은 4.4%p(30.2%→25.8%) 감소

< '17년도 4분기-'18년도 1분기 수출액 전망 증감율(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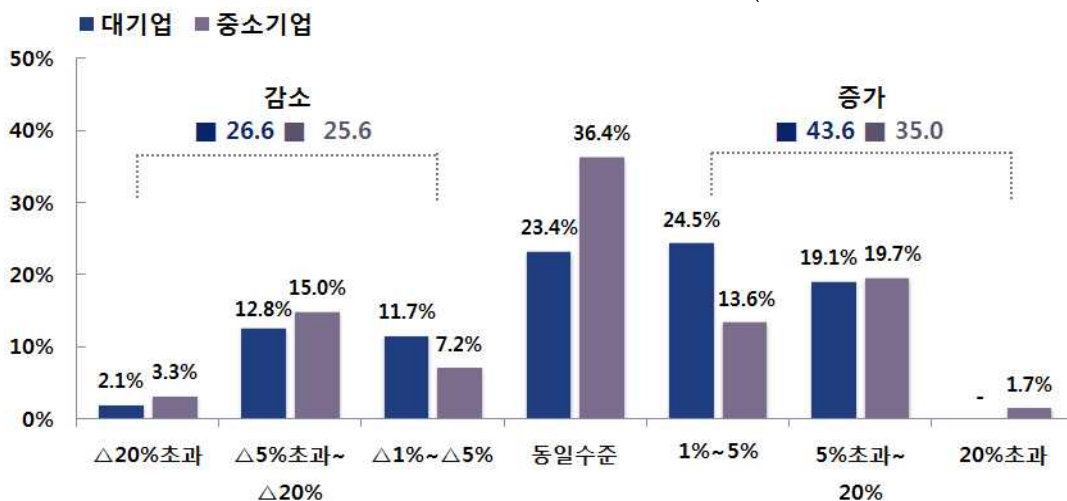
(응답 기업 수 454, 단위 : %)



○ (규모별) 대기업은 '감소' 및 '증가' 전망이 모두 증가(1.1%p/12.8%p), 중소기업은 '감소' 전망 감소(-5.8%p), '증가' 전망 증가(4.7%p)

< '18년도 1분기 수출액 전망 증감율(기업규모별, 전년동기대비) >

(응답 기업 수 45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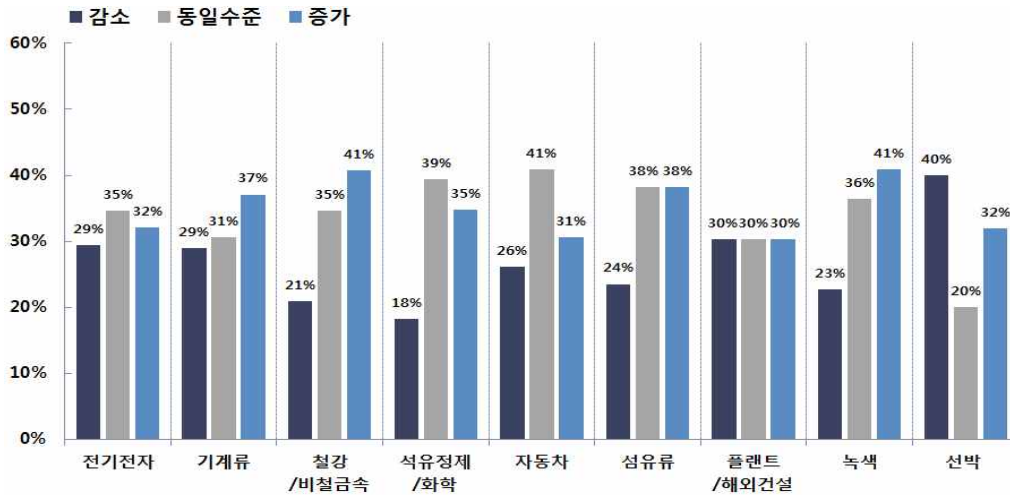


○ (산업별) 기계류(26.5%→37.1%), 철강·비철금속(32.1%→40.7%), 신재생 에너지(39.1%→40.9%) 등은 '증가' 전망 우세

- 선박(65.2%→40.0%)은 '감소' 전망이 우세하나, 비중은 축소

< '18년도 1분기 수출액 전망 증감율(산업별, 전년동기대비) >

(응답 기업 수 45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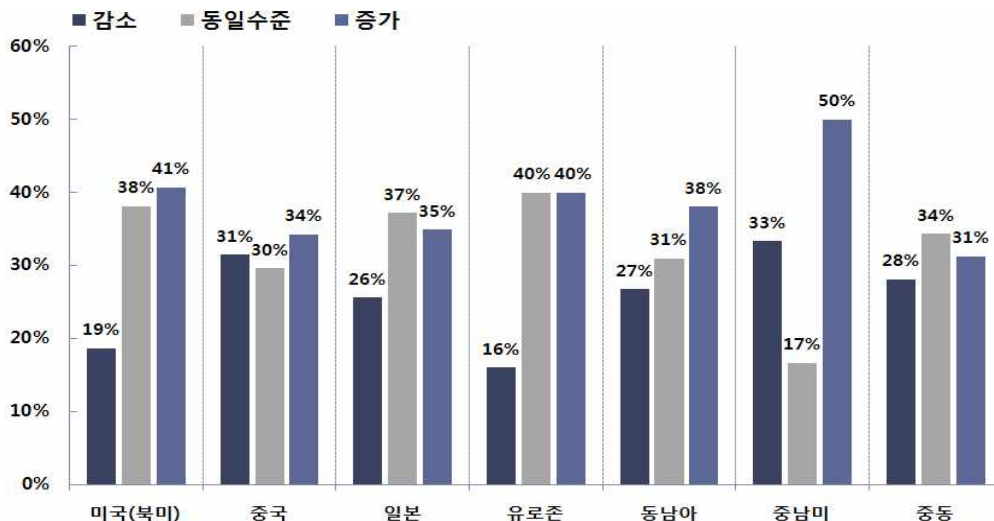


○ (지역별) 미국(27.7%→40.7%), 중국(30.4%→34.3%), 유로존(36.4%→40.0%), 동남아(36.5%→38.0%), 중남미(18.2%→50.0%) 등 대부분 수출지역에서 '증가' 전망 우세

- 일본(35.0%→37.2%), 중동(25.0%→34.4%) 등에서는 '동일수준' 전망 우세

< '18년도 1분기 수출액 전망 증감율(지역별, 전년동기대비) >

(응답 기업 수 454, 단위 : %)



< '17년도 4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

(단위 : %)

구 분		△20%초과	△5%초과 ~△20%	△1% ~△5%	동일수준	1%~5%	5%초과 ~20%	20%초과
전	체	3.1	14.5	8.1	33.7	15.9	19.6	1.3
규모	대 기 업	2.1	12.8	11.7	23.4	24.5	19.1	-
	중 소 기 업	3.3	15.0	7.2	36.4	13.6	19.7	1.7
산업	전 기 전 자	3.8	16.7	9.0	34.6	11.5	19.2	1.3
	기 계 류	2.4	19.4	7.3	30.6	12.9	23.4	0.8
	철강·비철금속	1.2	9.9	9.9	34.6	21.0	18.5	1.2
	석유정제·화학	1.5	4.5	12.1	39.4	13.6	19.7	1.5
	자 동 차	2.3	13.6	10.2	40.9	17.0	13.6	-
	섬 유 류	5.9	11.8	5.9	38.2	26.5	11.8	-
	플랜트·해외건설	6.1	15.2	9.1	30.3	15.2	15.2	-
	녹 색	4.5	4.5	13.6	36.4	13.6	22.7	4.5
	선 박	8.0	24.0	8.0	20.0	8.0	20.0	4.0
수출지역	미 국 (북미)	2.5	11.0	5.1	38.1	21.2	18.6	0.8
	중 국	2.8	15.7	13.0	29.6	14.8	19.4	-
	일 본	0.0	16.3	9.3	37.2	11.6	20.9	2.3
	유 로 존	2.0	14.0	-	40.0	16.0	24.0	-
	동 남 아	5.6	14.1	7.0	31.0	15.5	21.1	1.4
	중 남 미	8.3	25.0	-	16.7	25.0	8.3	16.7
	중 동	3.1	15.6	9.4	34.4	9.4	2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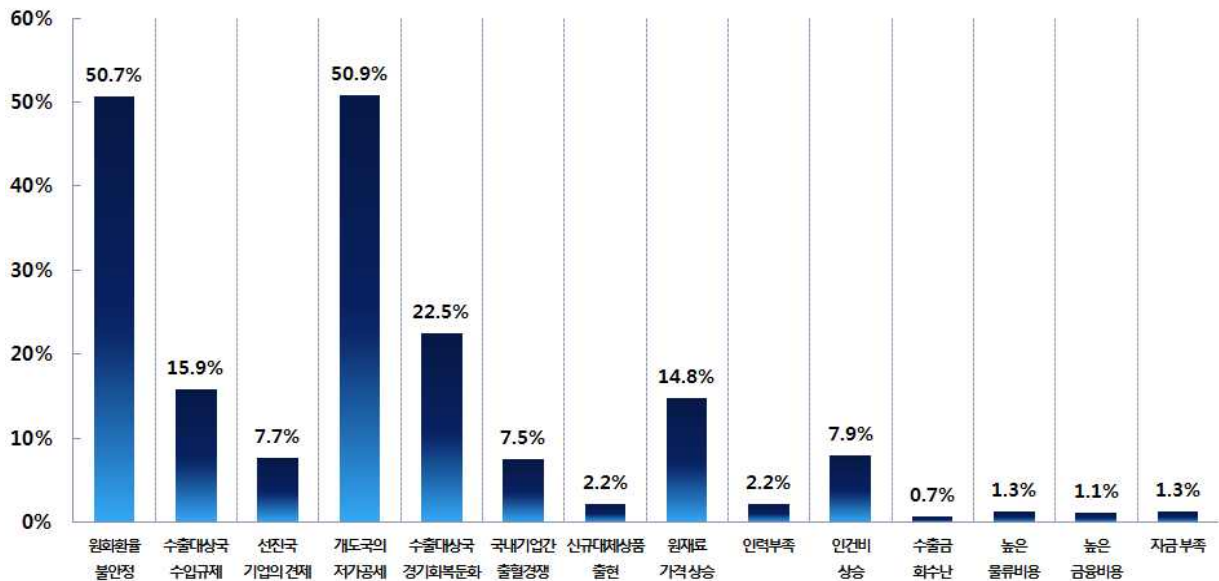
*자료 : 총 454개사 <모름/응답거절(17개사) 제외>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 설문대상 수출기업(454개사)은 수출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개도국의 저가공세'(50.9%), '원화환율 불안정'(50.7%),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22.5%) 순으로 응답
- 전기대비 '원화환율 불안정' 20.0%p 상승(30.6%→50.7%), '원재료 가격 상승' 4.2%p 하락(18.9%→14.8%),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 7.5%p 하락(30.0%→22.5%)

< 4분기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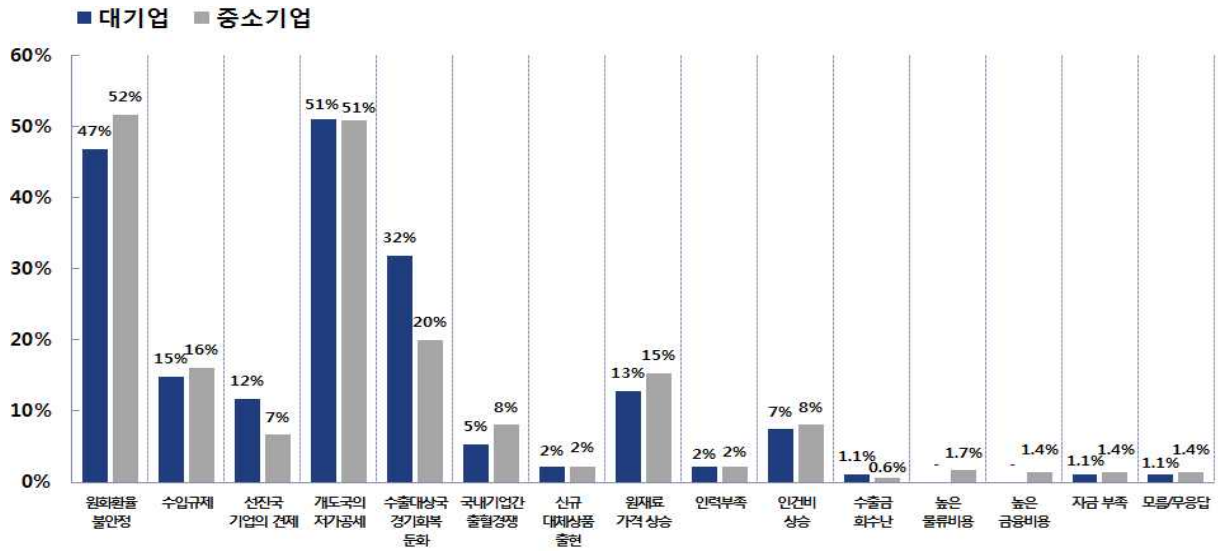
(응답 기업 수 454, 단위 : %, 1순위+2순위)



-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개도국의 저가공세'(51.1%/50.8%), '원화환율 불안정'(46.8%/51.7%),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31.9%/20.0%)를 수출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
 - 대기업은 전기대비 '원화환율 불안정' 응답률이 18.1%p 상승(28.7%→46.8%), 중소기업은 동 항목 응답률이 20.6%p 상승(31.1%→51.7%)
- (산업별) 대부분의 산업군이 '개도국의 저가공세', '원화환율 불안정',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를 수출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
 - 전기대비로는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비철금속,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업종에서 '원화환율 불안정' 응답률은 상승한 반면, '수출대상국 수입규제',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 응답률은 하락

< 4분기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기업규모별) >

(응답 기업 수 454, 단위 : %, 1순위+2순위)



< '17년도 4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

(단위 %, 1순위 + 2순위)

구분	원화환율 불안정	수입규제	선진국 기업의 견제	개도국 저가공세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	국내기업간 출혈경쟁	원재료 가격상승	인건비 상승	
전체	50.7	15.9	7.7	50.9	22.5	7.5	14.8	7.9	
규모	대기업	46.8	14.9	11.7	51.1	31.9	5.3	12.8	7.4
	중소기업	51.7	16.1	6.7	50.8	20.0	8.1	15.3	8.1
산업	전기전자	51.3	12.8	6.4	55.1	21.8	2.6	17.9	7.7
	기계류	50.0	16.9	9.7	49.2	22.6	6.5	12.9	6.5
	철강·비철금속	61.7	22.2	6.2	51.9	16.0	8.6	13.6	4.9
	석유정제·화학	48.5	16.7	7.6	56.1	19.7	3.0	21.2	7.6
	자동차	54.5	17.0	9.1	47.7	17.0	8.0	12.5	9.1
	섬유류	44.1	14.7	2.9	50.0	20.6	5.9	20.6	14.7
	플랜트·해건	27.3	9.1	6.1	48.5	33.3	21.2	9.1	18.2
	녹색	36.4	27.3	13.6	50.0	27.3	0.0	18.2	4.5
	선박	28.0	4.0	8.0	68.0	60.0	8.0	4.0	0.0
수출지역	미국(북미)	61.0	11.9	6.8	50.0	17.8	5.1	8.5	10.2
	중국	50.0	16.7	9.3	53.7	18.5	6.5	19.4	6.5
	일본	51.2	14.0	4.7	41.9	27.9	9.3	14.0	2.3
	유로존	46.0	12.0	6.0	56.0	38.0	10.0	12.0	6.0
	동남아	39.4	22.5	9.9	53.5	21.1	8.5	19.7	7.0
	중남미	58.3	16.7	0.0	58.3	25.0	8.3	16.7	8.3
	중동	43.8	12.5	9.4	53.1	31.3	9.4	9.4	9.4

*자료 : 총 454개사 <모름/무응답 제외(6개사)>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1. 설문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평가 : 조사 해당 분기
 - 실적전망 : 조사 다음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2017년 12월 11일~15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 크기 : 대·중소기업 454개 업체
(대기업 94개, 중소기업 360개)
- 조사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평가
수출단가 평가지수	수출단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생산원가 평가지수	생산원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수출물량 평가지수	수출물량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수출계약 평가지수	수출계약금액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자금사정 평가지수	자금사정의 개선 또는 악화에 대한 평가

3. 수출 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

□ 모형 개편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 2010년=100 기준으로 산출되며, 2018년 1분기 수출 선행지수 추정부터는 ISM제조업 신규주문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등을 변수로 추가하는 등 추정 모형 소폭 개정

* 미국공급자관리협회(ISM: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에서 매월 400여개 제조업체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재고, 고용 등의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

□ 지수 모형 구성 내용

구분	변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중국, 인도, 브라질 · 외화획득용 일반수입액 · ISM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
수출가격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실효환율
산업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 선박 : 해외수요 선박수주액 · 기계 : 해외수요 기계수주액